

해외 우수기관(터키)의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연수명	해외 우수기관(터키)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연수기간	2014년 2월 4일 ~ 2월 10일
대상국가	터키
참가인원	황규복 의장 외 18명



구로구의회
GURO-GU COUNCIL

구로구의회 해외(터키) 비교시찰 결과보고서

해외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비교시찰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 및 도시 분야 등 각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수집한 자료를 우리구 의회와 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의정활동 및 구정에 선진화 및 다양화를 기하고자 함.

I 방문개요

- 일 시 : 2014.02.04(화) ~ 02.10(월) / 4박 7일
- 대상국가 : 터키
- 목 적 : 터키의 시장, 고대 건축물 등 각종 시설 및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구 의회 행정 및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등을 연구하기 위함
- 참석인원 : 19명

의원			사무국직원		
연번	직위	성명	연번	직위 또는 직급	성명
1	의장	황규복	12	사무국장	김용환
2	부의장	박종현	13	전문위원	배춘화
3	의원	박동웅	14	의정팀장	곽정희
4	의원	허성근	15	의사팀장	박석영
5	의원	윤수찬	16	행정7급	고재봉
6	의원	강태석	17	행정7급	이효무
7	의원	곽윤희	18	기능7급	권영희
8	의원	김남광	19	별정7급	강미향
9	의원	김명조			
10	의원	김준희			
11	의원	김복희			

■ 주요일정

방문일시			주요방문내용	비고
제1일	02.04(화)	22:00 23:55	○ 인천국제공항 집결 ○ 인천국제공항 출발	
제2일	02.05(수)	05:00 10:00 14:00 16:00	○ 이스탄불 도착 ○ 히포드럼 및 성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사원 시찰 ○ 그랜드바자르 관리사업소 방문 ○ 지하 물 저장고 시찰 ○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	
제3일	02.06(목)	09:00 13:00	○ 이스탄불 출발/ 네비쉐르(가파도키아)도착 ○ 파샤바 계곡, 지하도시 데린구유	
제4일	02.07(금)	10:00 15:00	○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시찰(건축분야) ○ 안살라로 이동	
제5일	02.08(토)	10:00 15:00	○ 구시가지 시찰(도시시설분야) ○ 파묵칼레 석회봉 및 히에라폴리스 시찰(도시시설분야)	
제6일	02.09(일)	10:00 17:00	○ 에페소 시찰(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 등) ○ 이즈밀 출발/ 이스탄불 공항 도착	
제7일	02.10(월)	00:55 18:05	○ 이스탄불 공항 출발 / 인천향발 ○ 인천공항 도착	

II

일반현황



- 수 도 : 앙카라
- 인 구 : 8천60만명(2013년 기준)
- 면 적 : 783,562km² 세계 37위(남한의 약 8배)
- 기 후 : 해안지방(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내륙지역(계절차가 큰 대륙성 기후)
- 주요민족 : 터키민족(대다수), 압하스인, 아자르인, 알바니아인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함께 살고 있음.
- 언 어 : 터키어(공용), 아랍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등 소수 사용
- 종 교 : 무슬림(전체의 98%)
- 정 치 : 대의 민주주의 국가
- 대 통 령 : 압둘라 귄(2007.08.28~)
- 총 리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자연적 특성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아시아 쪽 터키 영토(주로 아나톨리아로 구성)는 국토의 97%를 차지하며, 보스포루스 해협, 마르마라 해, 다르다넬스 해협(흑해와 지중해를 이어준다.)을 끼고 있는 유럽 쪽 터키 영토는 국토의 3%에 불과하다.
- 터키의 영토는 길이로는 1,600 km, 폭 800 km에 이르며,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이다. 호수를 포함한 터키의 육지 면적은 783,562 제곱킬로미터이며,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영토는 755,688 제곱킬로미터이고, 유럽 대륙에 속한 영토는 23,764 제곱킬로미터이다. 터키는 세계에서 37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프랑스 본토와 영국 영토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이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데, 서쪽에는 에게 해, 북쪽에는 흑해,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다. 또 북서쪽으로는 마르마라 해가 있다.
- 터키의 유럽 영토인 동부 트라키야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시아 쪽 영토인 아나톨리아(소아시아)는 중앙에 고원 지대와 좁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북쪽에는 키프루스 산맥과 도우 산맥(폰토스 산맥)이, 남쪽에는 토로스 산맥(타우루스 산맥)이 뻗어 있다. 동부 터키는 산악 지형이 더욱 발달되어 있으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라스강 등 여러 강의 수원지이고, 반 호와 터키 최고봉 아라라트 산(높이 5,165m)이 있다.
- 터키는 7개의 인구조사용 지역으로 나뉘는데 마르마라 지역, 에게 해 지역, 흑해 지역,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남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지중해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흑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북부 아나톨리아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길고 좁은 띠 모양이다. 이 지역은 터키 총 면적의 1/6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아나톨리아 내륙 고원은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형이 험해진다.

- 터키의 다양한 경관은 복잡한 지각 운동의 산물로, 오랜 세월동안 이 땅을 형성하였으며 상당히 잦은 지진과 이따금 일어나는 화산 분출은 지금도 일어나는 지각 운동의 좋은 증거이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은 오늘날의 흑해를 형성한 터키의 단층선 때문에 생겨났다. 국토 북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지진 단층선 때문에 1999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행정구역

-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이다. 터키 영토는 행정구역상 81개 주로 나뉜다. 주는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7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는 행정 조직을 이루지는 않는다. 각 주는 구역으로 세분되는데, 총 923개의 구역이 있다.
- 주의 이름은 보통 주도의 이름에서 따오는데, 하타이 주(주도: 안타크야), 코자엘리 주(주도: 이즈미트), 사카르야 주(주도: 아다파자르) 처럼 예외인 경우도 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이스탄불 주(1,200만 이상), 앙카라 주(440만 이상), 이즈미르 주(370만 이상), 부르사 주(240만 이상), 아다나 주(200만 이상), 콘야 주(190만 이상)이다.
- 국내 최대 도시이자 공화국 성립 이전에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터키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이다.[29] 터키 인구의 70.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 백만을 넘기지 못하는 주가 18개가 있고, 백만에서 50만 사이의 주도 21개나 있다. 인구 10만 이하의 주는 2개가 있다.

■ 경제적 특성

- 터키는 구매력 평가 대비 국내총생산 세계 15위, 명목 국내총생산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나라는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와 G20의 창립 회원국이다. 1923년에서 1983년까지 터키 공화정이 들어서고 60년간 터키는 대개 국가주의적 정책을 고수하여 정부 예산을 엄격하게 계획하고, 개인부문 참여, 대외무역, 외화유통, 외국인 직접투자에 정부가 제약을 가하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 투르구트 외잘 총리가 일련의 개혁을 주도하면서 경제 정책이 국가주의에서 탈피하여 개인부문과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자유화 개혁 덕분에 터키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4년과 1999년(그 해 지진 발생 후), 2001년에 갑작스러운 침체와 금융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198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터키의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4%를 나타내었다. 추가적인 재정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에 공공부문 적자가 커진데다 광범위한 정치 부패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은행부문이 허약해졌으며,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01년 경제 위기와 당시 재정 장관 케말 데르비쉬가 주도한 개혁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으며, 투자자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은 2008년 터키의 물가상승률을 6%로 예측하였다. 터키는 대외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줄이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점차 자국시장을 개방하였는데, 여러 경제부문을 개인과 외국인에게 넘겨 자유화하는 정책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7.4%를 나타내었는데, 덕분에 터키는 같은 기간에 세계적으로도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4.5%로 떨어졌으며, 2009년 초에 터키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국제통화기금은 그 해의 침체율을 5.1%로 예측하였으며, 반면 터키 정부는 3.6%로 추산하였다.
- 터키 경제는 더 이상 농촌 지역의 전통적인 농경이 주류가 아니며, 대부분 국토 서쪽 주에 집중된 주요 도시의 산업 단지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서비스부문도 확대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2009년에 농업 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8.8%에 머물렀으며, 산업 부문은 27.5%, 서비스 부문은 63.8%를 나타내었다.
- 유럽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8년 유럽 연합 평균치의 45%로 나타났다.
- 관광 부문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터키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에 터키를 방문한 사람은 30,929,192명으로, 터키 재정 수입에 미화 219억 달러를 기여하였다.
- 그 밖에 터키 경제에서 중요한 경제 부문은 은행업, 건설, 가전제품, 전기, 섬유, 석유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식품, 광업, 철강, 기계 산업 및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터키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8년에 1,147,110대 차량을 생산하여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국 6위(영국보다는 낮고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순위), 세계 기준으로는 15위 생산국이었다. 또 터키는 조선업 선도국으로 2007년에 이 나라는 선박 수주량 기준으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으며, 호화 유람선 수주량 기준으로도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 4위였다.

- 터키는 2005년에 유럽 연합과 맺은 관세 동맹 덕분에 수출 예정 산업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유럽 연합의 대 터키 외국인 투자로 이익을 보고 있다. 2007년에 수출액은 미화 1,153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요 수출 상대국: 독일 11.2%, 영국 8%, 이탈리아 6.95%, 프랑스 5.6%, 에스파냐 4.3%, 미국 3.88%; 유럽 연합에 대한 총 수출 56.5%) 그러나 같은 해 수입액은 1,621억 달러로 수출액보다 더 많아 무역 수지를 위협하였다. 2008년 터키의 수출액은 1,418억 달러이며, 수입액은 2,048억 달러였다.
- 터키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7년에는 219억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이후에는 투자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영화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터키가 유럽 연합과 가입 협상을 시작하면서 안정성을 얻었으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은행업과 소매업 및 통신 부문에서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III 주요비교시찰

■ 히포드럼 광장 시찰

- 말의 광장이라는 의미의 히포드럼은 로마시대의 대전차경기장으로써 이스탄불을 정복한 셉티무스 세베루스의 통치기간 중인 AD.203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수도를 옮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확장되어 AD.330년에 완공되었다. "U"자의 형태의 경기장을 중심으로 4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40줄의 계단식 좌석이 있었고 길이 400미터, 넓이 120미터로써 총 10만명 가량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전차경기 뿐만 아니라 각종 검투사경기 및 모임활동 장소였다.

- 히포드럼 중앙에는 이집트 룩소카르낙아몬신전에서 가져온 3,500년 된 투트모스3세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으며, 그 옆에는 BC.479년에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신전에 세워졌던 뱀기둥이 있다. 또한 콘스탄틴7세의 32미터 기둥과 1898년에 독일 빌헬름 황제가 만들어 준 순금모자이크의 분수도 볼 수 있다

■ 성소피아성당 시찰

-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 걸작인 성당으로 하기아 소피아라고 한다. 이곳이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호칭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의 대성당으로 지어졌고, 터키 지배하에서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 ‘아야 소프야’라고 불리었으며, 1935년부터 현재까지 미술관이 되어 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가 ‘성스러운 예지(叡智)’(하기아 소피아)에 바친 구당(舊堂)(325) 대신에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새로운 구상으로 재건되었다. 안 길이 81 m, 너비 70 m의 광대한 3랑(廊) 바실리카 플랜과, 지름 약 33 m의 거대한 원개(圓蓋)를 교묘히 조합시킨 절충적인 원개 바실리카식 성당이다. 본당(nave) 중앙에 4개의 대지주를 세우고 그 위에 대형 아치와 펜덴티브 구법(構法)에 의한 대원개를 덮고 있다. 중앙 돔 주위에는 40여개의 창문이 있다. 동서의 긴 방향으로 가해지는 횡압(橫壓)을 대소의 반원개(半圓蓋)로 받치고, 남북 방향의 횡압은 대지벽(大支壁)(563 증설)으로 받친 매우 독창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 설계자는 트랄레스의 안테미오스와 밀레토스의 이시도로스라고 하는데, 100명의 감독관과 1만명의 공인이 5년 10개월 만에 완성하였다. 그들의 재능이 만들어낸 풍부한 내부 공간과 동산을 방불케 하는 장대한 외관을 보고 537년 12월 헌당식(獻堂式)에 참석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감격하여 “오! 솔로몬이여! 나, 그대에게 이겼노라!”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헌당 당시, 당내에 빛나고 있었을 6세기의 모자이크는 8~9세기의 아이코노클레즘(성상 파괴운동) 때에 없어지고, 그 후에 제작된 모자이크도 15세기 이후, 이슬람교 투르크의 점거하에 거의 없어졌으나, 근년의 조사에 의하여 앞방[前室]과 2층 복도의 벽면에서, 석회칠 속에 그려져 있던 9~13세기의 모자이크의 일부가 발견되어, 그 고도의 기술과 뛰어난 표현이 주목을 끌고 있다. 당내에는 대소의 주두(柱頭) 조각으로 대표되는 비잔틴의 세련된 장식 조각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블루모스크 시찰

-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직경이 27.5m, 높이가 43m에 다다르는 술탄아흐멧 모스크는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의 것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사원이다. 그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돔의 200개가 넘는 조그만 창은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들어오는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이슬람 사원은 ‘미나레’라고 하는 첨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첨탑의 숫자가 사원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1개는 개인이 지어서

기부한 것이고, 2개는 장군이, 3개는 국가가, 4개 이상은 술탄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 관련 사진



히포드럼 광장의 오벨리스크



히포드럼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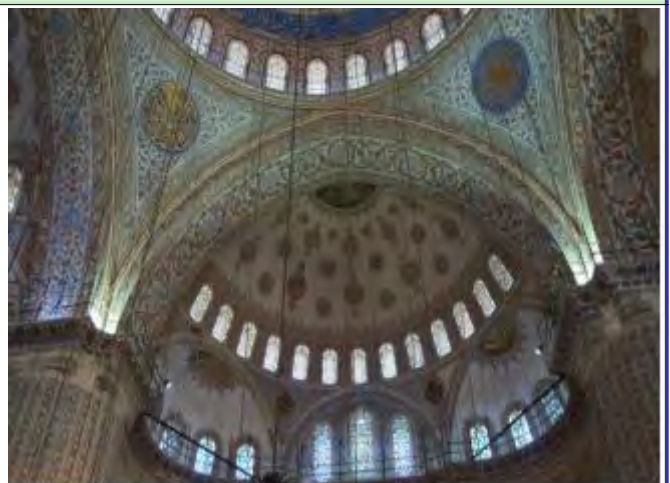
성 소피아성당



성 소피아성당 내부



블루모스크 사원



블루모스크 사원 내부

■ 그랜드 바자르 관리사업소 방문

- 비잔틴 시대부터 현재 그랜드 바자르가 있는 장소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후 터키가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면서 1455-1461에 걸쳐 그 곳에는 도시의 경제생활을 부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두 개의 주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이후 사람들은 활발한 상업활동을 위한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주 아케이드의 바깥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오스만 시대를 거치면서 지진,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던 이 곳은 몇 번에 걸친 복구 끝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18개의 출입구와 4천개 이상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는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의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구 전통시장도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지하 물 저장고 시찰

- 지하 물 저장고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져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1세 시대에 확장돼 길이 141m에 폭이 73m나 되는 대규모의 물 저장고이다. 8m높이의 돌기둥 336개가 떠받치고 있는데 관람객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돌기둥 사이에 복도를 설치하고 조명까지 설치해 놓았다.
- 물 저장고에 저장되는 물은 이스탄불에서 19Km 떨어진 벨라그드 숲에서 끌어온 물로 저수량이 80,000ton에 달한다고 한다. 원래는 예레바탄 사룬치(지하 저수장)이라 불려야 하지만 마치 지하궁전 같기 때문에

예레바탄 사라이(지하 궁전)로 흔히 불린다. 물 저장고 내부에는 돌기둥의 초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대한 메두사 얼굴이 2개 있는데, 메두사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뱀이 된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 때문에 메두사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게 메두사의 얼굴을 거꾸로 놓았다는 설이 있다. 또한 물 저장고에는 수많은 잉어들이 살고 있는데, 적이 혹시 독을 풀까봐 물고기를 넣어 관리했다고 한다. 우리 구도 지하 저수조나 정수장을 관광 또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보스포루스 해협

- 이 해협의 길이는 30km, 최대 너비는 북쪽 입구에서 3.7km, 최소 너비는 루멜리히사리와 아나돌루히사리 사이의 750m이다. 종류에서 수심은 36~122m로 다양하다. 가운데에는 흑해로부터 마르마라 해로 빠른 조류가 흐르나 수면 아래에는 마르마라 해에서 흑해 쪽으로 짙물이 역류한다. 이 해협은 계절에 따라 물고기들이 흑해로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어류가 풍부하고 숲이 우거진 양쪽 해안에는 마을, 휴양지, 아름다운 저택 및 별장이 산재해 있다.
- 보스포루스는 '소의 여울'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요정 이오가 젊은 암소의 모습으로 방랑하던 중 트라키아의 보스포루스를 횡단한 전설과 관련이 있다. 해협의 남쪽에 걸쳐있는 이스탄불을 방어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들과 그 이후의 오스만 제국 군주들이 해안(특히 유럽 쪽 해안)을 따라 요새를 건설했다. 오스만 제국의 요새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390~91년 바예지드 1세가 아시아 해안에 건설한 아나돌루히사리 성과 1453년 메흐메드 2세가 해협을 직접 가로질러 건설한 루멜리히사리 성이

있다. 19세기 들어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군함의 운항을 통제하는 규정이 성문화되었다.

■ 관련 사진



그랜드 바자르



그랜드 바자르 관리소장과 간담회



지하 물 저장고



지하 물 저장고



보스포루스 해협



보스포루스 해협의 돌마바흐체 궁전

■ 카파도키아 방문

- 카파도키아는 아나톨리아 중동부를 일컫는 고대 지명으로서 타우루스 산맥 북쪽의 고원에 있었던 카파도키아는 로마의 동맹국이자 속국이며 나중에는 로마의 속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카파도키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6세기의 문헌이다. 그 당시 카파도키아에는 봉건세력이 페르시아 사트라프(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조로아스터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지역은 로마에 점령당할 때까지 페르시아의 성격을 유지했다.
-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카파도키아를 우회했지만 페르디카스 장군이 이끄는 부대를 이 지역으로 파견했다(BC322). 카파도키아는 BC190년에 로마가 마그네시아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셀레우코스 왕조의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로마가 승리한 뒤 이 지역은 BC1세기 폰투스왕국과 아르메니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로마에 충성을 바쳤다. 17년에 티베리우스가 이 지역을 병합할 때까지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던 카파도키아는 타우루스 산맥의 전략적 통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의 보루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파샤바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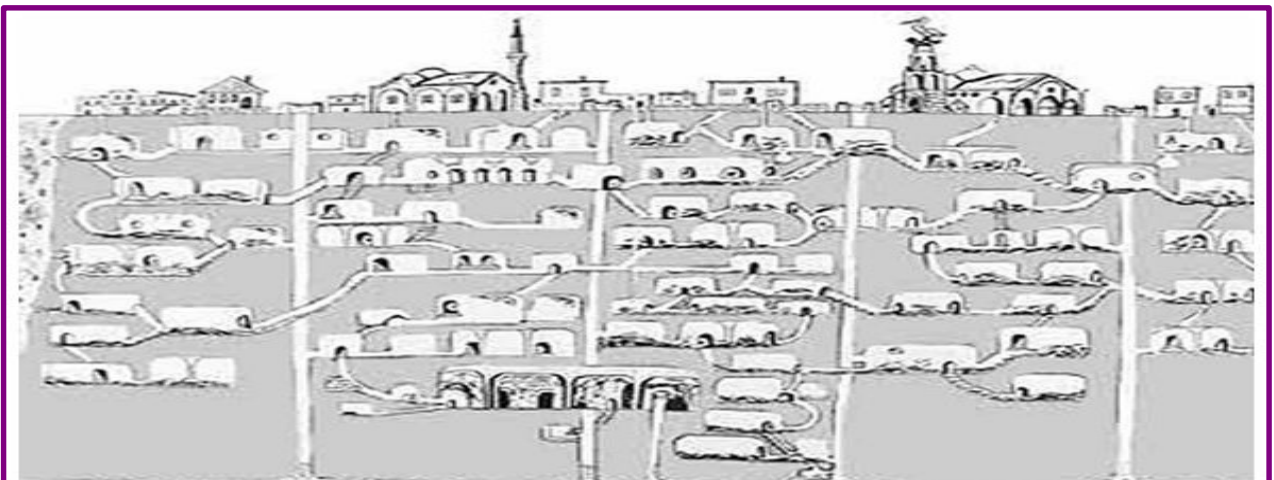
- 이 계곡은 카파도키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섯바위가 유명하다. 오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 이 버섯바위는 그 모양이 꼭 버섯을 닮았으며,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의 배경이 된 곳이며,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벨기에의 작가 피에르컬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58년 이곳에

왔다가 파사바 계곡의 버섯바위를 통해 개구쟁이 스머프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과거 수도사들이 이곳에 구멍을 파서 고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곳을 수도사의 골짜기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랍인들로부터 도망쳐 온 기독교도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6세기 후반 이슬람 왕조의 침공을 받게 되자 신자들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

■ 지하도시 데린쿠유

○ 카파도키아는 거대한 지하도시로도 주목을 받는 곳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데린쿠유(깊은 우물이라는 뜻)다. 이곳은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다가 1960년대 작은 구멍으로 사라진 닭을 찾으려다가 발견했다. 기독교인들이 아랍인들의 침공으로부터 신앙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곳으로 지하 20층의 규모이며, 개미집처럼 복잡하게 얹혀있다. 통로는 좁고 낮으며 겨우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이며 지하 1,2층은 양이나 가축이 기거하던 곳과 부엌이 있고, 지하 8층까지 각 층별로 거실, 포도주공장, 교회, 감옥, 무덤 등이 있는데 깊이가 85m나 된다고 한다.

○ 데린쿠유 모형도



■ 관련 사진



파샤바 계곡



파샤바 계곡



데린쿠유



데린쿠유

■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시찰

○ 아스펜도스 시민과 이 도시국가의 신(神)과 왕가(王家)에 봉헌된 아스펜도스 부채살 모양의 극장은, 팜필리아(Pamphylia) 지역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물이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극장이다. 테오도루스(Theodorus)의 아들 제노(Zeno)가 디자인 하였으며, 쿠르티우스 크리스피너스(Curtius Crispinus)와 쿠르티우스 아우스피카투스(Curtius Auspicatus) 등 두 형제에 의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 161~180 A.D.) 통치시기에 지어졌다 한다.

- 관중석은 20계단씩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 아래층으로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통로계단이 구축되어 있다. 관중 1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13세기에는 셀추인들에 의해서 보수되었고, 낙타무역상들에 의해서 활용되기도 했으며, 그동안 아주 부분적인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극장은 오늘날도 오페라를 비롯하여 콘서트, 민속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공연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 안탈라

-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 만 연안에 있는 지중해의 항구도시이다. BC 2세기에 페르가몬의 왕 아탈루스 2세가 세운 해항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후계자 아탈루스 3세가 로마에 유증(遺贈)했다. 사도 바울로와 바르나바가 선교활동을 위해 안티오크로 떠날 때 바로 이 항구를 이용했다. 3개의 아치로 된 대리석 대문인 '하드리아누스 문'은 130년에 이곳을 방문한 하드리아누스를 기념하여 지어진 것이다.
- 중세에는 비잔틴의 요새였으며 십자군 원정 때에는 팔레스타인으로 떠나는 군대의 주요 승선지였다. 1207년 셀주크 투르크의 통치자 카이 쿠스라우에게 점령되었고, 그 후 얼마 안 되어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겸 항구가 되었다. 1391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에게 처음으로 점령되었으나, 오스만 제국으로의 합병은 티무르의 침략으로 야기된 혼란으로 인해 15세기 후반까지 지연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제국의 전후 분할을 위해 이탈리아·프랑스·영국이 맺은 1917년의 3국 협정에서 이탈리아는 안탈리아와 그 배후지의 영유권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군대가 1919년 이곳을

점령했으나 1921년 7월 투르크의 국민군에게 쫓겨났다.

-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따뜻한데다가 근처에 고대 유적지가 많은 관계로 터키령 리비에라의 주요 관광 휴양지가 되었다. 부두가 내려다보이는 낮은 절벽 위에 있는 옛 도시는 로마·비잔틴·셀주크 시대에 개축되었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유명한 유적으로는 한 때 등대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되는 옛 탑과 1250년에 세워진 셀주크의 종교대학 겸 모스크가 있다. 안탈라 구 시가지 또한 시찰을 하면서 배수시설 및 보도블럭 및 건축 유형 등을 비교시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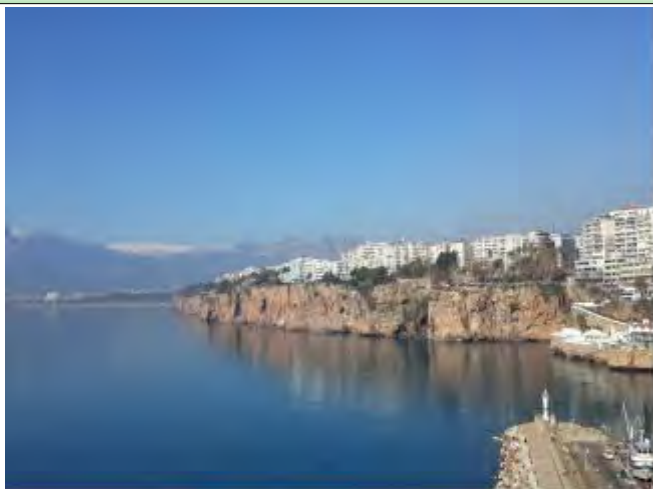
■ 관련 사진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외부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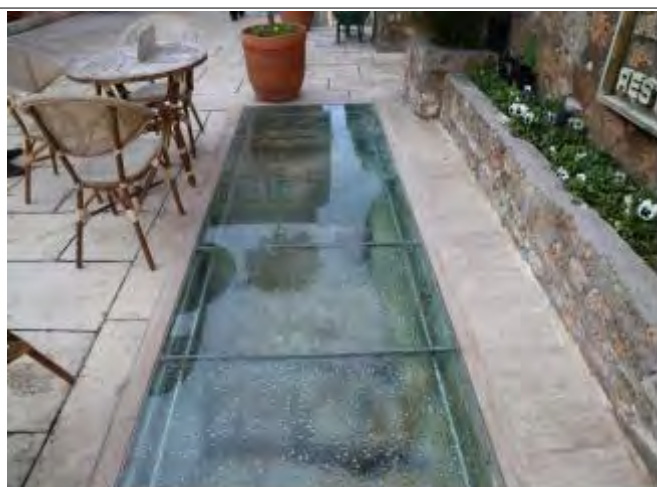
안탈라



안탈라



안탈라 하드리아누스의 문



안탈라 구시가지 배수로



안탈라 구시가지



안탈라 구시가지

■ 파묵칼레 석회봉 및 히에라폴리스 시찰

○ 터키의 데니즐리에 위치하며, 평원 위로 솟은높이 약 200m절벽의 샘들에서 나오는 칼슘을 함유한 물로 인해 파묵칼레(목화의 성이라는 뜻)에는 광물의 숲, 석화폭포, 계단 형태의 분지들 등으로 구성된 환상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 히에라폴리스라는 이름의 도시를 최초로 건설한 왕은 기원전 180년경 페르가몬 왕국의 유메네스2세였다. 유메네스 왕은 전설의 왕국 페르가몬의 창건자 텔레포스 왕의 아내인 히에라를 기념하기 위해 이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히에라폴리스는 바로 이웃의 고대도시 라오디케아와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급진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기원전 133년 페르가몬의

마지막 왕 아탈로스3세가 자신의 왕국을 로마제국에 자진 헌납함으로써, 히에라폴리스는 로마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몇 차례의 대지진으로 고대도시의 많은 유적지가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관련 사진



파묵칼레 석회봉



파묵칼레 석회봉



파묵칼레 석회봉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

■ 에페스 시찰

- 터키의 셀축이라는 도시에 있으며, 이 도시에는 에페스 고대 유적지를 비롯하여 에페스 박물관, 성모 마리아가 요한과 함께 말년을 보냈던 성모 마리아의 집, 성 요한 교회,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등 거대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에페스는 소아시아의 수도일뿐 아니라,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였다. 기원전 11세기 그리스에서 온 이오니아인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했는데, 도시는 비옥한 토지와 활발한 교역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여 에게해 연안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로 발전해갔다. 이 도시의 황금기는 기원전 133년 로마제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국제 회의가 열리고, 각지의 물자가 집합되는 무역항구이자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이었으며 초대 기독교인에게도 에페스는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 에페스에는 약 1,4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오데이온(음악당)’은 당시 돔 형태의 시설로 공연 뿐 아니라 각종 회의장으로도 널리 쓰였다. 또한 오데이온 옆에 있는 여러 토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는 로마시대의 상수도관으로 쓰인 것들이었으며, 오데이온 옆에는 목욕탕도 있었다. 목욕탕은 온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우나와 비슷한 구조이다. 이는 당시 로마의 발달된 목욕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경우이다. 이 목욕탕 옆에는 벽을 따라 아무런 칸막이도 없는 화장실이 늘어서 있는데 벽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고, 목욕탕에서 버리는 하수로 정화조

역할을 했으며, 앞은 곳 앞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 이 물로 휴지 대신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수세식이며 비데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다.

- 에페스에는 고대 그리스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조각상 및 시설물 등이 많은데, 그 중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조각상, 의학 및 상업의 신 헤르메스와 카두세우스의 부조,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 등이 있다. 헤라클레스의 문에서 세르시우스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메인스트리트 크레티아 거리는 길 양쪽에 유명한 사람들의 석상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소실되었다.
- 우리구의회는 에페스를 견학하면서 고대의 목욕탕 및 수세식 및 비데 화장실, 돔 형태의 음악당, 상수도 및 하수시설, 보도블럭 형태의 거리 등 도시시설분야 및 건축분야에서 상당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 관련사진

	
에페스 시찰	오데이온(음악당)
	
목욕탕	화장실



크레티아 거리



로마신 조각상



세르시우스 도서관



에페스의 아고라(시장)

IV 시찰 후기

■ 관광자원 개발 필요성 증대

- 4박 7일 동안의 여정으로 인해 터키의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었으나, 유구한 역사의 터키의 문화, 건축물, 종교 등을 짧게나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2년 기준 터키의 방문객수는 3,570만명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1,110만명보다 약 3배가 많은 숫자이다. 관광객유치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자치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구도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만한 관광자원을 필히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키처럼 오래된 유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룰테면, 터키의 그랜드 바자르처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 등을 확대개발 및 보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필요

○ 터키의 상당부분의 많은 주(구)가 오랜 세월동안 이룩해온 관광 자원과 여행상품이 있다면 우리구는 우리구만의 IT기술 등을 자랑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이 아닌 자치구 또는 주(states) 차원에서 구로구와 터키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체결을 통한 서로의 특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